



나누는 공동체, 떠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열왕 19,4-8 [화답송] 시편 34(33),2-3.4-5.6-7.8-9 (◎9ㄱ 참조) (후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제 2 독서] 에페 4,30-5,2 [복음환호송] 요한 6,51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요한 6,41-51

[성가안내]

- 입당성가 [9] 우리 모두 함께 모여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성체성가 [160] 하느님의 어린양
- 파견성가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전등하신 아마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1				
미 사 봉 헌				
ર્વાત્મ -	부성			
이영우, 이태묘 윤은미 유스티나 원근자 세실리아 백대웅 안드레아 박상병, 이희섭 이창석 베드로, 이영수 도미니코 안길자 세실리아	이상홍 스테파노 장준영 미카엘 방상욱 베드로 백이백, 이정현 이애자 수산나 이애자 수산나 전보나			

: 황경옥 (건강 회복 위해) 황경숙 수산나 장희순 글라라, 마정애 글라라 김종선 비비안나 김기례 레지나 익명 전연우 다니엘, 전 소민 헬레나 이 에스터 노의선 프란치스코 (영.육의 건강 위해) 이종환 가족 맨하탄 공동체 모든 교우들 위해 이종환 가족 김가롤로 신부, 박티모테아 수녀 김기례 레지나 이경봉 그레고리오, 노의선 프란치스코 은총의 샘 꾸리아 이병국 요한, 이진자 세실리아 은총의 샘 꾸리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8월 8일	장혜윤	민완준	민덕미	민완준	이지훈
	크리스티나	필립보	안젤라	필립보	아네스
8월 15일	박기웅	박기목	김애희	김애희	안선정
	사도요한	알버트	테클라	테클라	마리안나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공지사항

● 주일 학교 교리 교사 찾습니다.

9월부터 팬데믹 이전으로 주일학교 일정이 되돌아 간다는 가정 아래 미래 교회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신앙생활과 사랑의 예수님께로 인도 해 줄 봉사자들을 환영합니다.

문 의 : 김 가연 크리스티나 연락처 : 347-882-2244

● 예비자 교리반 시작 공지입니다.

- 교리 시작 : 2021. 9. 26. 주일 미사 후

- 신 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내 주세요.

- 세례 예정 : 2022년 부활 대축일

● 성경 묵상

- 야훼이레 : 8월 7일(토) 오전 10시, 2층 교리실

- 야훼는 나의 목자 : 8월 8일(일) 오후 2시, 2층 교리실

● '신명' 풍물패 모임

- 8월 15일 오후 2시~4시, 교육관 4층 음악실 앞방

- 8월 29일 오후 2시~4시, 교육관 4층 음악실 앞방

● 제38차 여성 꾸르실료

- 일 시 : 2021. 11.

- 장 소 : 뉴튼 수도원

- 문 의 : 민완준 필립보 간사 (929-444-1411)

● 제38차 여성 꾸르실료 봉사자 모집과 교육

- 기 간 : 2021. 8. 18(수) ~ 11. 10(수) - 14주

- 방 법 : 한달에 한번 대면과 나머지는 Zoom 으로 합니다.

- 접수마감 : 2021. 8. 12. (목)

- 대 상 :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

- 문 의 : 민완준 필립보 간사 (929-444-1411)

* 수강자, 봉사자는 입소전 뉴튼 수도원 사무국에서 Covid Test 에서 Negative를 받은 사람만 입소 가능합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일요일 9:15 am (한인공동체),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https://stfrancisnyc.org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울뜨레아	1 st 주일 11:00 am	교육관 4
학부모회	1 st 주일 11:00 am	교육관 3
요셉회	2 nd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모회	2 nd 주일 11:00 am	교육관 4
연령회	2 nd 주일 11:00 am	Lower Church
꾸리아	3 rd 주일 11:00 am	Lower Church
양업회	3 rd 주일 11:00 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김동희(헬레나)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고종호(마태오) 홍봉운(바오로) 진정은(마리아)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노의선(프란치스코) 이병국 (요한) 이진자(세실리아)

[2021년 8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교회

성령께서 교회에 은총과 힘을 베풀어 주시어 교회가 성령의 빛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Nest Seekers 1 4 1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그리운 聞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EST 8 WINE &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요한 6, 41-51)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하느님게서 내려 주시는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 생명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사람 들은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먹어 하느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슴 앞에서 요한 복음 사가는 사람들을 '군중'이 아니라 '유다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군중은 그래도 예수님께 호의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분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적대히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이제 우리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인가? 예수님께 서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만이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고, 아들 안에서 아버지를 보고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시어 '살아 있는 빵'이 되십니다. 죽음까지 불사한 그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의 삶이 보여 준 사랑으로 생명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말입니다.

- 서철 바오로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감사의 심리"

삶에 대한 실망으로 무기력 해지거나 자포자기 하는 마음 막아 주는 약, 일상에서 감사 할 일 찾는 것이 중요!

가끔 신자들이 불평하는 만 중에 감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신부들이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는데 무슨 감사냐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만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감사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감사기도는 우리가 삶에 대해 실망하여 자칫 우울증이나 구리력증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예방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삶에 대해 기대를 갖습니다. '적어도 이정도는 살아야한다'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자기 삶을 버리고 방치하고 싶은 충동 느낍니다.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트리는일조차 벌입니다. 이럴 때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가정도 사람도 모두 잃어 버리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 우리는 감사하며 살는 것이 어려운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일에 대해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섭섭한 것, 손해 본 것만 잘 기억하는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덜 성숙한 어린아이와 비슷해서 사탕을 처음 받았을 때와 실컷 먹고 난 후의 마음이 다릅니다.

성당 할머니들께서는 물 한잔을 드셔도 성호를 긋고 감사기도를 하고 드십니다. 작은 기도이지만 보기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의 눈에도 아름다워 보이는데 하느님께서 보시기엔 얼마나 좋으실까요?

어떤 본당 신부가 새임지로 갔는데, 영 마뜩지 않아서 매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순박한 신자들은 본당 신부가 성질 부릴 까봐 피해다니고요. 그러던 어느날 신자한 사람이성당에 성체 조배하러 갔는데, 마침 본당 신부가 십자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주님께 항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도대체 나 같은 인재를 왜 이런 시골구석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하며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는 본당 신부를 보던 신자는 그 다음 순간 깜짝 놀랄 구경을 하게됩니다. 갑자기 십자가의 주님이 내려 오시더니 다짜고짜 본당신부의 면상을 후려치시 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내가 네놈을 그 동안 챙겨 준게 얼마나 많은데..." 그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신자는 고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본당신부가 주님께 맞았다 할 수도 없고 고민 고민 하던 신자는 주교님을 찾아 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교님께서 비밀을 지키라 당부하신 후 그 본당으로는 진상 신부들만 보내셨다는 후문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 성당은 성지 아닌 성지가 되었 답니다.